

유권자 36.3% 선거 일주일 전 후보 결정

유력한 다음 大選후보 朴槿惠 26.4%로 1위

4월 총선 투표 의향: 한나라당 42.7%, 대통합민주신당 16.5%, 민주노동당 8.6%, 창조한국당 7.6%, 민주당 2.3%

가장 인상이 좋은 후보는 鄭東泳, 가장 똑똑해 보이는 후보는 李明博, 가장 깨끗해 보이는 후보는 文國現

白承俱 月刊朝鮮 기자 (eaglebsk@chosun.com)

결국, 경제였다

李明博(이명박) 48.67%, 鄭東泳(정동영) 26.14%, 李會昌(이회창) 15.07%. 지난해 12월19일에 있었던 2007년 大選(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이다.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왜 이런 득표율을 안겨 주었을까? 후보들의 어떤 차이점이 이런 결과를 낳게 했을까?

유권자들은 2007년 大選 후보들 가운데 鄭東泳씨를 가장 인상이 좋은 후보로 꼽았다. 깨끗하다는 느낌이 드는 후보로는 文國現(문국현) 후보를 맨 앞에 내세

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李明博 후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한국갤럽이 대통령 선거 직후 투표자 1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月刊朝鮮은 한국갤럽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12월19일 투표 종료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다. 투표 당일 보도된 언론사들의 출구조사와 달리 이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선택하기까지의 「마음의 행로」까지 보여 주고 있다.

대통령 당선 결과 예측도는 李明博



대통령 선거일인 2007년 12월19일 유권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전남 투표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나주시 남령초등학교).

49.8%, 鄭東泳 24.7%, 李會昌 13.9%, 文國現 4.9%로 대통령 후보들의 실제 득표율에 근접했다. 전화조사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6\%$ 이며, 응답자 중 709명과 710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문항에 대한 표본오차는 $\pm 3.7\%$ 다.

먼저 투표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李明博 후보의 경우 「경제발전」이란 응답이 49.4%로 집중된 반면, 鄭東泳 후보(26.8%)·李會昌 후보(36.6%)·文國現 후보(48.0%)는 모두 「인물/이미지」를 투표 이유로 꼽은 응답이 많았다.

「경제 발전」, 「인물/이미지」, 「능력/경력」, 「정책/공약」, 「소속 정당」 등 복수의 질문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응답하게 한 이 질문에서 李明博 후보의

경우는 「인물/이미지」가 좋아서 투표했다는 응답이 24.8%였다.

2002년大選 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盧武鉉(노무현) 후보의 경우 투표 이유를 묻는 항목 중 「나이·젊다」가 13.5% 가장 높았고, 李會昌 후보는 「능력·경력」 19.3%, 權永吉(권영길) 후보는 「서민적」이라는 이유가 24.8%로 가장 높았다. 세 후보 모두 개인의 이미지가 가장 큰 투표 이유였다. 이런 결과와 비교할 때 지난 5년간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이 「경제문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고정표 많았던 李明博

지지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투표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후보 전체를 보

면 「마음에 들어서」란 응답이 64.0%로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되기 때문에 투표했다」(33.9%)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李明博·李會昌·文國現 세 후보의 경우는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란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鄭東泳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다른 후보 견제 목적으로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0%로 「마음에 들어서」(47.6%)와 비등한 수치를 보였다.

「자신이 투표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상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당선되리라고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이 64.2%로 「그렇지 않다」(35.8%)보다 많았다. 2002년大選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응답이 77.2%였다. 당선 가능성 예상 수치는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박빙 승부로 치러진 지난大選과 달리 1위 후보의 독주가 지속됐던 이번 선거에서 지지도 2위 이하 후보들의 당선을 기대한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李明博 후보 투표자의 경우 대다수인

투표 후보 결정 시기를 살펴보면, 10명 중 1명 정도(9.4%)가 「투표 당일/투표장」에서 최종 투표자를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투표 2~3일 전」은 14.9%, 「일주일 전」은 12.0% 등으로 선거일 일주일 이내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36.3%로 조사됐다.

94.0%가 당선을 예상한 반면, 鄭東泳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절반 미만인 44.8%가 鄭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 李會昌 후보는 29.3%, 文國現 후보는 19.8%에 그쳤다.

투표 후보 결정 시기를 살펴보면, 10명 중 1명 정도(9.4%)가 「투표당일/투표장」에서 최종 투표자를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투표 2~3일 전」은 14.9%, 「일주일 전」은 12.0% 등으로 선거일 일주일 이내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36.3%로 조사됐다. 선거 막바지까지 부동층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大選 사후 여론조사 시 32.3%보다 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李明博 후보 투표자의 경우 한 달 이전 결정 비율이 69.9%로 鄭東泳(40.7%), 李會昌(42.7%), 文國現(32.4%) 후보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李明博 후보의 고정표가 많았다.

당선 가능성 없어 지지자 바뀌

투표 일주일 전쯤에 다른 후보를 지지

대통령 당선자 해결 당면 과제 (단위: %)

경기 회복 / 경제활성화	28.4
일자리 창출 / 실업문제	20.9
서민 위한 정책 / 양극화 해소	13.4
물가 안정	6.5
부동산 안정	6.2
공교육 정상화 / 교육문제	4.7
세금축소 / 형평성 있는 세금 제도	3.1
정치 안정 / 개혁	2.0
지역 간 차이 / 지역감정 해소	1.7
북한 핵문제 해결 / 남북관계 개선	1.7
기타	11.4

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14.7%의 응답자가 「예」라고 답했고,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는 85.3%였다. 이어진 「그렇다면 지지했던 후보는 누구입니까」라는 항목에서는 李明博 33.7%, 文國現 22.6%, 李會昌 18.3%로 나타나 李明博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李明博 후보 지지에서 이탈한 투표자들의 사유를 보면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0%인 반면, 「BBK 사건」이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직성 부족」(22.0%), 「BBK 동영상 유포」(16.1%) 순이었다.

文國現 후보와 李會昌 후보의 지지자 이탈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가 각각 43.7%, 37.6%로 가장 많았다.

투표 후보 결정 시 참고한 것을 2개까지 질문한 결과, 「TV 토론」이 52.0%로 가장 많았고 「신문/방송 보도」 43.0%, 「신문/방송 광고」 23.7% 순으로 나타나 이번 선거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여전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위 사람/가족/친척」은 19.1%, 「인터넷」 15.9%, 「선거 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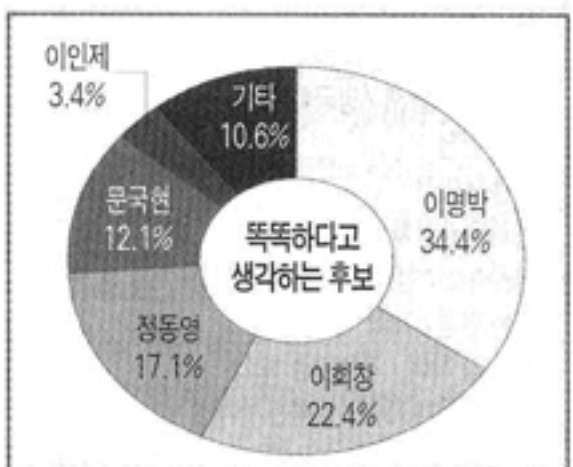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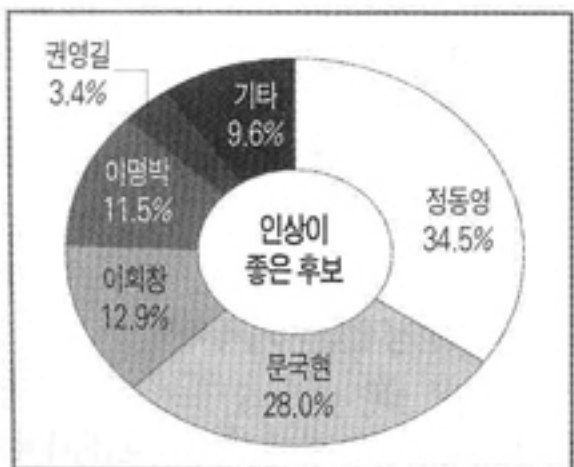
11.8%, 「벽보/팸플릿」 5.7% 순이었다. 19~29세 젊은 층의 경우 「인터넷」을 참고했다는 응답이 18.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선거 전 쟁점이 된 이슈들이 투표 후보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이번大選이 盧武鉉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7.2%로 「영향이 없었다」(37.9%)보다 많았다.

「盧武鉉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장이 투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高연령일수록(50세 이상 72.9%), 低학력일수록(중졸 이하 66.9%), 호남권을 제외한 쏘지역(50% 이상)에서 높았고, 李明博 투표자(74.3%)와 李會昌 투표자(58.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2002년大選에서 盧武鉉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가운데는 46.2%의 응답자가 「영향이 있었다」고 했고, 「없었다」는 48.3%였다.

BBK 사건은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과 「없었다」는 응답이 각각 47.3%, 50.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高연령일



수록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19~29세 젊은 층은 40.1%가 「많이」, 19.8%가 「약간」 등 절반 이상인 56.8%가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BBK 사건」 영향은 반반

BBK 사건 관련 李明博 후보의 해명이 정직하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정직하지 못했다」가 63.5%로 나타났고, 「정직했다」는 19.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7.4%였다. 연령별로는 50代 이상 高 연령층에서 「정직했다」가 33.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는 「정직했다」와 「정직하지 못했다」가 각각 38.7%와 41.1%로 엇비슷하게 나왔다.

BBK 사건에서 김경준씨의 주장이 정직했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정직하지 못했다」가 56.6%로, 「정직했다」(19.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BBK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8%가 「잘된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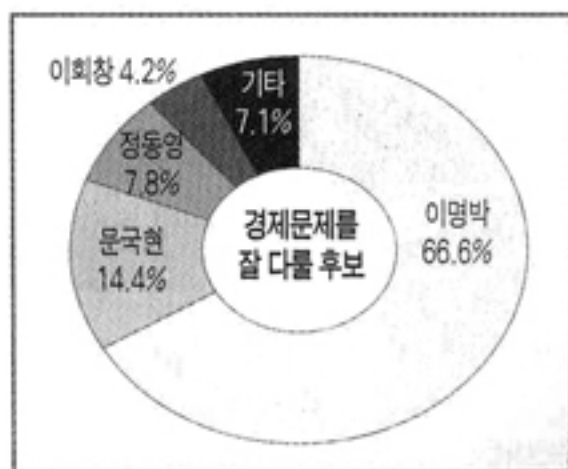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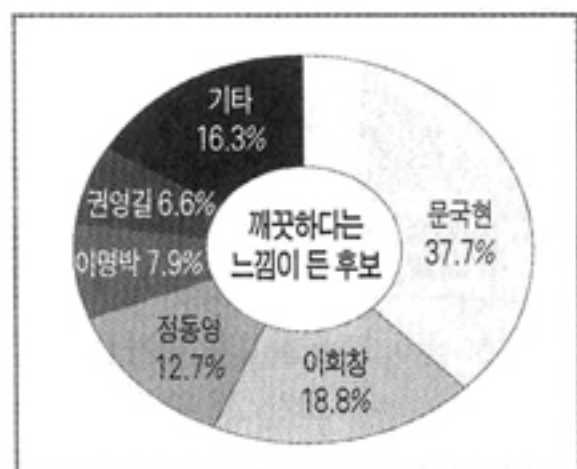
BBK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8%가 「잘된 일」이라고 했고, 「잘못된 일」이라고 본 투표자는 26.6%였다.

라고 했고, 「잘못된 일」이라고 본 투표자는 26.6%였다.

「정몽준·심대평·김홍일씨 등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과 「선거 하루 전 김경준씨의 해명」은 대부분(80% 이상) 「영향 없었다」고 응답했다.

정몽준·심대평·김홍일씨 등 주요 인물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일이 투표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영향이 있었다」는 14.6%에 불과했고, 「없었다」는 82.4%였다.

투표일 하루를 앞두고 김경준씨의 「그동안 거짓 주장을 하여 선거에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해명이 투표 후보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영향이 있었다」는 12.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0.0%는 「없었



다」고 답했다. 李明博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영향이 있었다」와 「없었다」가 각각 13.7%와 80.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영향이 없었다」가 87.2%로 가장 높았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1위 李明博

이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 이미지 요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알아봤다.

李明博 후보는 「경제문제를 잘 다룰 후보」(66.6%)에서 자신의 지지도보다 높은 평가를 얻으며 타 후보를 압도한 반면, 「우리 편이란 느낌이 드는 후보」(27.9%),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후보」(34.4%) 항목에선 자신의 지지도를 밑도는 평가를 받았다. 「인상이 좋은 후보」(11.5%), 「깨끗하다는 느낌이 드는 후보」(7.9%) 항목에선 鄭東泳, 文國現, 李會昌 후보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유권자들은 투표 후보 결정시 대선후보 TV토론회를 가장 많이 참고했다.

鄭東泳 후보는 「인상이 좋은 후보」 측면에서 34.5%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文國現(28.0%), 李會昌(12.9%), 李明博(11.5%) 후보를 앞섰다. 인상이 좋지 않은 후보는 李明博(32.0%), 鄭東泳(13.8%), 李會昌(13.1%), 李仁濟(5.5%) 순이었다.

李會昌 후보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후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22.4%)를 받았다. 이 항목에서는 李明博 후보가 34.4%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李會昌, 鄭東泳(17.1%), 文國現(12.1%) 순이었다.

文國現 후보는 「깨끗하다는 느낌이 드는 후보」 항목에서 37.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李會昌(18.8%), 鄭東泳(12.7%), 李明博(7.9%)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 편」이라는 느낌을 주는 후보는 李明博(27.9%), 鄭東泳(13.0%), 文國現(12.8%), 李會昌(10.8%) 순으로 꼽혔다. 李明博 후보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느낌을 주는 후보 항목에서

도 41.2%로 선두를 차지했고 鄭東泳(15.7%), 李會昌(13.4%)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大選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로는 朴槿惠(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가 26.4%로 1위를 차지했고 文國現

(12.9%), 鄭東泳(12.2%)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항목을 2명까지 뽑아 달라는 항목에서는 여전히 朴槿惠 대표가 30.5%로 선두였고 鄭東泳(23.7%), 문국현(20.1%) 후보의 순서는 바뀌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10명 중 7명(71.7%)이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2002년 大選 사후 여론조사 당시 공정성 평가(78.5%)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의견은 영남권에서 81.6%로 가장 높았고, 호남권은 65.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16代 大選과 비교한 상대적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선 65.7%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2002년 大選 사후 여론조사에선 79.1%가 「1997년 大選과 비교해 공정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네거티브 캠페인에 부정적

盧武鉉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중립을 지켰다고 보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중립을 지켰다」가 54.9%로 절반을 넘었다.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38.0%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51.9%의 투표자가 중립을 지킨 것으로 본 반면, 호남권에서는 76.8%의 응답자가 중립을 지킨 것으로 봤다.

2002년 大選에서 盧武鉉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65.8%가 중립을 지킨 것으로 본 반면, 李會昌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41.0%만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10명 중 7명(71.7%)이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2002년 大選 사후 여론조사 당시 공정성 평가(78.5%)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중립을 지킨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50.3%)은 이번 大選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호비방/인신공격/흑색선전」을 꼽아 각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줬다. 다음으로는 「BBK 사건」(7.2%), 「언론의 불공정 보도」(6.9%) 순이었다. 「지역감정 자극」을 문제로 지적한 투표자는 2.5%에 그쳤다.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경우 어느 정당을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한나라당 42.7%, 대통합민주신당 16.5%, 민주노동당 8.6%, 창조한국당 7.6%, 민주당 2.3%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 42.6%, 대통합민주신당 15.5%, 창조한국당 9.6% 순이었고, 호남권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48.0%, 창조한국당 11.5%, 민주노동당 10.2% 순이었다. 한나라당은 5.3%였다. 충청권에서는 한나라당 32.8%, 민주노동당 13.2%, 대통합민주신당 12.8% 순이었다.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 61.1%, 민주노동당 7.6%, 대통합민주신당 6.8%였다. ●